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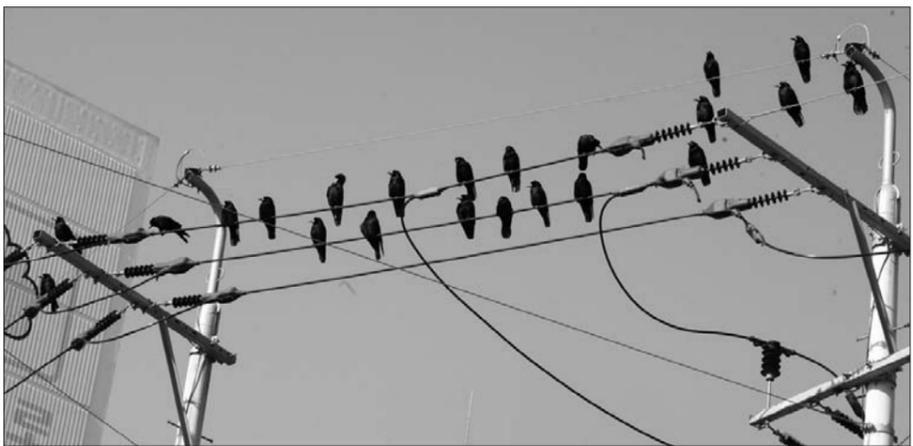
# 전주, 전통문화 체험형 수학여행프로그램 개발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예약 가능 윈스톱 서비스 제공 시, 광역시와 각 도교육청 방문해 설명회 실시기로

대한민국 수학여행 1번지로 급부상한 전주시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수학여행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시는 전주만의 전통, 문화, 역사와 연계한 체험형 수학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해 더 많은 타 지역 학생 관광객 유치활동을 펼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한옥마을 관광안내소에서 전통문화체험과 해설투어 예약이 가능한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전주를 찾는 수학여행객들은 한옥마을 해설 예약과 체험 예약을 별도로 진행하면서 겪었던 불편을 겪어 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비빔밥, 잡채, 전통 떡 등 음식체험과 한지 뜨기, 한지함 만

들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한 뒤 해설사와 함께 전주 대표 관광명소인 한옥마을과 경기전, 오목대, 전통성당 등을 둘러보며 깊이 있는 해설 투어를 학교별, 학급별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선비들의 활쏘기 체험인 향사예(국궁), 선비들의 의복을 입고 인사하는 의례를 배우는 사상경례 등 선비체험과 관소리 및 가야금 공연, 도자기, 전통공예 등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어 1박 2일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시는 이 같은 수학여행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광역시와 각 도교육청을 방문해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수학여행지의 매력을 담아낸 홍보책자

를 제작해 방문 가능성을 한 층 더 높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전주를 방문해 해설투어에 참여한 수학여행 단체 관광객은 204학교 1만6466명이며, 73학교 4854명이 숙박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 또 1823년에 설립된 싱가포르 명문 고등학교인 래플스 고등학교(Raffles Institution)의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와 도시정책을 배우기 위해 전주를 찾는 등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수학여행지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는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보다 공격적인 수학여행객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수도권이나 부산에서도 3시간 이내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전주를 찾아 좋은 추억을 남기고 돌아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11일 김제시 김제역 인근에 까마귀 떼가 전봇대와 전깃줄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까마귀는 겨울 철새로 겨울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며 나무 열매와 벌레 등을 잡아먹는다.

## 임실군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하라"

광주에 촉구... 심민 군수 "변경등록 철회할 때까지 군민들의 곁의 받들어 끝까지 싸울 것"

임실군이 오염된 토양을 밀반입한 업체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철회해달라고 광주광역시에 촉구했다. 신덕면 반대투쟁위원회 등은 11일 임실군민체육회관에서 광주광역시의 독단으로 일어난 사태라며 결의문 발표와 함께 군민권리대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군민권리대회는 심민 임실군수와 신대용 임실군의회장, 이용호 국회의원, 전북도의회 한완수 부의장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집회는 광주광역시에 허가를 내준 한 업체가 오염된 토사를 정화해 되팔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한 뒤 12월 대구의 한 버스 정비업소에서 나온 토사 360t을 밀반입한 문제로 열렸다.



임실군이 오염된 토양을 밀반입한 업체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철회해달라고 광주광역시에 촉구했다. 신덕면 반대투쟁위원회 등은 11일 임실군민체육회관에서 광주광역시의 독단으로 일어난 사태라며 결의문 발표와 함께 군민권리대회를 열었다.

한 재앙이 불 보듯 뻔하다"며 "광주시가 변경등록을 철회할 때까지 군민들의 곁의 받들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목정호는 정읍과 김제, 임실이 매일 4만3천의 식수원으로 공급하는 상수원으로 현재 토양정화업 공장부지와 불과 2.1km 거리에 있다. 한편, 임실군은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철회를 위해 작년 11월 29일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반려한 데 이어 지난 1월 7일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양정화업 관련 법 개정을 촉구, 현재 계류 중이다. /김석훈 기자,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약초 휴진 일당 검거 남의 약초밭에서 하수오를 캐 달아 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11일 특수절도혐의로 A모씨(56)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25일 오전 12시경 남원시 고죽동에서 피해자 B모씨(72)의 약초밭에서 하수오 15kg 가량을(시가 40만원 상당) 공평이로 캐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등의 조사로 A씨 등을 검거했다. A씨는 "몸에 좋다길래 술 담그려고 그랬다. 산에서 자생하는 하수오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김석훈 기자

## 고혈압·당뇨 두려워 마세요

평화보건지소, 4월까지 '늘 봄날 운동교실' 운영

전주시보건소 평화보건지소는 11일부터 평화동에 거주하는 심뇌혈관 질환자를 대상으로 늘 봄날 운동교실을 지소 내 2층 보건교육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늘 봄날 운동교실은 운동지도사의 지도 아래 심뇌혈관질환자에게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운동교실에서는 △들이 함께 웰빙 스트레칭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밴드 운동 △관절도 춤추게 하는 유연운동 △청춘을 돌려주는 근력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사진, 사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체지방 분석 및 측정을 통해 운동의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송효철 기자

최근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자가 늘어나고 여러 질환을 동반한 대사증후군 등 중증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의료비와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운동이 필수적이지만 홀로 운동할 경우 중간에 포기하기 쉬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운동교실에는 평화동에 거주하는 보건지소 심뇌혈관질환 등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운동에 자세한 사항은 평화보건지소(063-281-6630)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 서해안 고순대,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합동단속 실시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수출대는 11일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률(일명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법규위반 분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주·야간 구분 없는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순대는 최근 한파가 찾아들어 일시적으로 행락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방문이 많은 명소에 교통순찰차와 도로공사 순찰차를 배치해 법규위반행위 제반에 대해서 집중 단속했다. 지난 10일 관광객 출입이 잦은 명승지인 선운산 나들목에서 서해안고속도로수출대, 도로공사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고 고순대는 전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일명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6월 25일부터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6%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만식 고순대장은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규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겠다"며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규를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석훈 기자

## 트윈세대 공간 맞춤형으로 조성

전주 증화산도서관

전주시가 건립 중인 (가칭)증화산도서관에 전국 최초의 트윈세대 전용공간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성하기로 했다. 트윈세대는 어린이도 청소년도 아닌 그 사이에 낀 8세부터 14세까지를 말한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지난 1월 책읽는 사회문화재단, C PROGRAM, 도서문화재단 씨앗 등 3개 민간단체가 협력해 공모에 선정된 트윈세대를 위한 공간 조성사업인 BTS(Be Tween Space) 프로젝트의 모든 추진 과정에서 트윈세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BTS 프로젝트는 현재 12번째 시립도서관으로 건립 중에 있는 증화산도서관 3층에 트윈세대를 위한 인테리어 △청소년 참여 디자인 프로세스 △콘셉트 에 따라 필요한 기기와 운영 기획 △운영을 위한 인력 투자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받아 트윈세대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트윈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리서치 컨설팅 전문업체인

다이어디어그룹과 협업해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이달 중순까지 트윈세대 50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14개 항목의 에스노그라피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차 웹 설문조사를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트윈세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트윈세대 전용공간이 들어서는 증화산도서관은 총사업비 103억원이 투입돼 오는 12월까지 부지면적 3,397㎡ 연면적 4,042㎡ 지하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창의형 어린이 자료실 △북카페 △개방형 자료실 △다목적 강당 △트윈세대 전용공간 등을 갖춘 전주시 대표도서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은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트윈세대 공간이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도서관에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즐거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 '명예훼손' 최낙삼 정읍시의장, 무혐의 처분

지난해 6월 귀농인 A씨로부터 '사기 및 출관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다섯 가지 혐의로 고발된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이 검찰로부터 모든 피의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해 30일 최 의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최 의장은 지난 2017년 농업 보조금 사업과 관련, A씨를 공갈·협박하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은 지난

7개월간 최 의장과 A씨를 수차례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최낙삼 의장의 피의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최 의장을 고소한 A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편, 피해자인 최낙삼 의원은 "지난해 망고생이 심했는데, 늦게나마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라며, "정확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기관과 끝까지 본인을 믿어준 정읍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 농가 관정개발 지원

전주시가 영농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가들의 관정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영농철 가뭄 발생 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9 농업용 중수형 관정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지방세와 농촌소득금 등 체납사실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개발예정지 내 농지는 제외된다. 시는 올해 50공 가량의 관정개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밭지역, 농업규모, 농촌동 거주 여부, 영농경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농가는 신규 관정 개발 시 중형 400만원, 소형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관정개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이용·개발 신고와 수질검사 등을 거쳐 관정개발 준공을 완료해야 한다. 송해인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관정개발 지원을 통해 영농철 농가들의 가뭄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물 부족으로 인한 가뭄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대낮부터 만취 운전 상가 돌진

만취상태로 운전한 50대가 상가로 돌진해 약국 매장 일부가 부서졌다. 지난 10일 오후 1시 20분경 익산시 부송동에서 A모씨(51)가 운전하던 차량이 상가를 들이쳤다. 다행히 인근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 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127%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석훈 기자